

뉴시티교회 초등부

리딩지저스

2026. 9. 28. (월) — 10. 3. (토)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스가랴 2~14장 · 에스더서 · 에스라 7~10장 · 느헤미야 1장

이름 _____

나의 이번 주 마니또를 잊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줍시다! ㅎㅎ

여는 글

이번 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는 스가랴의 환상에서 시작해서 에스더의 궁궐 이야기를 지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요.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며 기도했어요.

구약 통독의 마지막까지 잘 따라온 여러분, 정말 축하해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온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왕 예수님을, 이번 주 내 마음의 성문으로 활짝 맞이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이번 주 한눈에

6일간의 여정

01
9월 28일 (월)
더러운 옷을 벗기라

02
9월 29일 (화)
나귀 타고 오시는 왕

03
9월 30일 (수)
이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04
10월 1일 (목)
죽으면 죽으리이다

05
10월 2일 (금)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다

06
10월 3일 (토)
성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다

9월 28일 (월)

오늘의 말씀

3장

1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토막이 아니냐?”

3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네 죄를 없애 버렸다. 이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5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6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네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4장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잠에서 깨우듯 나를 깨웠다.

2 천사가 내게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일곱 개의 대접이 달려 있고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으며 그 대접 아래로 일곱 개의 대롱이 연결돼 있습니다.

3 그 등잔대 곁에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대접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대접 왼쪽에 있습니다.”

4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6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7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8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10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11 내가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양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12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금 대롱 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13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14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9월 28일 (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묵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은 그의 잘못을 고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내시지 않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말씀하시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탄은 우리 죄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벗기우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를 위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안에서 늘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생각 & 적용 질문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마음이 부끄러울 때, 나를 벌하기보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나요? 오늘 내 마음속 죄와 나쁜 습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보세요.

예: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기도로 마칩니다.

9월 29일 (화)

오늘의 말씀

9장

9 시온의 딸아,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쳐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10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11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 줄 것이다.

12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네게 두 배로 돌려줄 것이라고.

13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 그리스 아들들을 치게 하고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쓸 것이다.

14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부는 회오리바람처럼 앞으로 나가실 것이다.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쳐부수고 무릿매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밟아 이길 것이다. 그들이 술을 마신 듯이 적의 피에 취해 즐거이 부른다. 그들은 피로 가득 찬 그릇 같고 피에 젖은 제단 모서리 같을 것이다.

16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 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17 그들이 얼마나 잘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 . .

11장

12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 주었다.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 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다.

. . .

12장

10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 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 . .

13장

1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 .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칼아,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네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드리울 것이다."

9월 29일 (화)

나귀 타고 오시는 왕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의 묵상

스가랴 선지자는 커다란 말을 타고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평화를 전하러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나귀를 타시고, 은 삼십에 팔리시며, 창에 찔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모습은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스가랴가 본 모습 그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겸손하게 찾아오신 우리 왕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기쁘게 맞이하기를 기도해요.

● 생각 & 적용 질문

예수님은 힘으로 친구를 누르거나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먼저 섬기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고, 주변 친구들을 겸손하게 섬기려면 오늘 어떤 행동을 해볼 수 있을지 스스로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예: 내가 잘하는 활동이나 게임에서 이겼을 때 자랑하지 않고, 친구를 먼저 격려하고 도와주기

기도로 마칩니다.

9월 30일 (수)

오늘의 말씀

에스더 1장

1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 . .

10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일곱 명의 내시, 곧 므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11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2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격노해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 . .

15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16 그러자 므무간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17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18 바로 오늘이라도 왕비의 행동에 대해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19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20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21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므무간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 . .

에스더 2장

1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2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보십시오.

. . .

8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헤개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개에게 맡겨졌습니다.
9 헤개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헤개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일곱 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 . .

17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에스더 3장

1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2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3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개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 . .

6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개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개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 . .

8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 . .

12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13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열두째 달,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9월 30일 (수)

이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의 묵상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건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저버리는 세상의 왕과 달리,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내 상황이 힘들고 답답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해요.

● 생각 & 적용 질문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거나 순종할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예: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매일 밤 잊지 않고 기도하기

기도로 마칩니다.

10월 1일 (목)

오늘의 말씀

에스더 4장

1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불며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개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개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5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7 모르드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8 그는 또한 수산 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11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13 모르드개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14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15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16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17 그리하여 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에스더 6장

1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2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개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3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개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네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똑같이 하여라. 네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11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개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12 그러고 나서 모르드개는 왕의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에스더 7장

5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소?”
6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 . .

9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10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 . .

에스더 8장

5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1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10월 1일 (목)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의 묵상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혼자 안전한 궁전에만 머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요.

● 생각 & 적용 질문

에스더처럼 나 혼자만 편하고 안전한 것만 찾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내가 용기 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변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도와줄지 적어보세요.
예: 혼자 심심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함께 놀아주고 마음 모아 기도해주기

기도로 마칩니다.

10월 2일 (금)

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

1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 . .

5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 . .

10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11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에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입니다.
12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을 비오.
13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소.
14 당신은 왕과 일곱 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냄받은 것이므로
15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가고
16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은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제물도 가져가시오.
17 이 돈으로 즉각 황소와 숫양과 어린양을 사서 곡식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시오.
18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19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20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 . .

에스라 8장

21 그때 나는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2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 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23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24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뱌와 하사뱌와 그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25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 주었습니다.
26 내가 그들에게 달아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27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번쩔번쩔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두 개였습니다.

에스라 8장

34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35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숫양 96마리, 어린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36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0월 2일 (금)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의 묵상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직접 실천해 본 뒤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순서를 지켰어요. 자기가 안 지키는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에스라처럼, 예수님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뒤 가르치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행함과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도해요.

● 생각 & 적용 질문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고 정작 행동은 다르게 한 적이 있나요? 오늘 내가 배운 말씀 중 한 가지를 내 삶에서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예: "사랑하라"는 말씀을 말로만 외우지 않고, 오늘 가족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과 포옹으로 사랑 표현하기

기도로 마칩니다.

10월 3일 (토)

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

1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4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6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7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8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 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9 우리는 매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10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에스라 10장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2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3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1장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 내가 수산 성에 있을 때에
2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3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5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6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7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 . .

11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0월 3일 (토)

성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의 묵상

에스라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가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남의 아픔과 죄를 ‘내 일’처럼 품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무너진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무너진 소식 앞에서 먼저 울고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 생각 & 적용 질문

내가 지은 잘못이 아니거나 나랑 직접 상관이 없는 친구나 가족의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처럼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준 적이 있나요? 오늘 힘들거나 마음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기도와 행동을 적어보세요.
예: 아프거나 마음 상해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일 아니야”라고 지나치지 않고, 그 친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기

기도로 마칩니다.

설교 필기